

부산 사하구 신청사

Pusan Saha-gu Hall

부산시 사하구에서는 발전하는 경제추세와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2천년대 서부산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낙동강권의 중심도시로 지역사회가 원하는 공공시설을 수용하고 지역의 Land Mark로서 구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등 대민봉사의 질향상과 구민편의를 제공코자 신청사 건립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했다.

이 설계경기에서는 총 11개 작품이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일신설계(정태복)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며, 우수작으로는 신도시 설계감리(박찬실)안이, 가작으로는 부원종합건축(정성규)안이 각각 선정됐다. 본지에서는 이번 현상설계 경기의 심사과정, 심사평과 함께 당선작과 우수작을 게재한다.

□ 건축 개요

- 위치 : 사하구 신평동 산 26-3번지 일원
- 대지면적 : 29,760㎡(9,000坪)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공용의 청사부지
- 사업비 : 319억(추정)
- 사업기간 : 95. 1~98. 12

□ 추진경위

- 94. 8. 20 : 심사위원 구성(12명)
- 94. 9. 15 : 현상 공모 공고
- 94. 9. 28 : 응모자 접수마감(40명)
- 94. 9. 29 : 현장 설명
- 94.10. 5 : 응모자 결격사유 확인(결격자 없음)
- 94.12. 9 : 심사위원 사전모임 개최
- 94.12. 19 : 작품제출 접수마감(11건)

□ 심사결과

- 일시 : 94. 12. 22(목)10 : 00~15 : 30
- 장소 : 사하구청 본관4층 민방위교육장
- 입선작 내용
 - ▷ 당선작: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3동 1153 - 14번지 (주)일신설계사무소 정태복
 - ▷ 우수작: 부산직할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신도시 설계감리(주) 박찬실
 - ▷ 가 작: 부산직할시 사하구 당리동 325 - 18번지 부원종합건축사사무소 정성규

□ 심사방법

- 선정방법: 투표 및 채점
- 심사단계별구분:
 - 1단계 ▷탈락작품 5점 선정(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작품 탈락)
 - 2단계 ▷탈락작품 3점 선정(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득표작품 탈락)
 - 3단계 ▷가작 선정

- 4단계 ▷당선작 선정(최다 득표순으로 하되,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득표)
- ※1단계 심사후 잔여작품(6작품) 사전 설명기회부여
- 심사과정 입회위원 2명 선출

□ 시상 및 전시

- 시상
 - 일시 : 94. 12. 28 11 : 00
 - 장소 : 구청장실
 - 시상내용
 - 당선작1점 : 상패 및 기본 실시설계 용역자로 지정
 - 우수작1점 : 상패 및 시상금 700만원 수여
 - 가작1점 : 상패 및 시상금 300만원 수여
- 전시
 - 일시 : 94. 12. 27~12. 30(4일간)
 - 시간 : 09 : 00~17 : 00
 - 장소 : 사하구청 본관1층 민원실
 - 전시내용 : 출품된 작품 전부(입선작 표시)

□ 사전 심사위원 명단공개

- 위원장 : 부구청장(회의 진행)
- 학계(전문직 대학교수) : 5명
- 전문인 단체(대한건축사협회 부산직할시지부):1명
- 사하구 의회(의원) : 2명
- 사하구 건축위원회 위원:1명
- 공무원:2명

□ 심사위원회 위원 사전모임 개최

- 일시 : 94. 12. 9
- 목적 :▷심사위원 사전 현장 답사
 - ▷심사 과정 및 방법 토의
- 주요 결정 사항
 - 심사 당일 응모 신청자가 작품설계에 대한 사전 설명기회 부여
 - 사전 설명 시간은 10분 이내, 질의응답 가능

□심사는 투표를 1,2단계 무기명, 3,4단계 기명으로 진행

□심사 결과 및 과정 공개

- 입선작은 사하구 게시판 및 부산시보 게재
-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사지 게재
- 건축사지 게재후 기타건축관련 전문지의 게재요구가 있을 경우 게재
- 심사결과 및 과정(심사평 포함)을 공고 기간내 열람 공개

□기대효과

- 심사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 확보
- 사전 현장 답사로 주변여건 등을 파악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
- 참가자에게 작품설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작가의 설계 의도 파악
- 심사결과 및 과정의 공개로 투명성보장으로 현재까지 여타 현상설계 경기의 오해 및 잡음을 불식, 새로운 현상 공모의 모델 제공 효과.

□심사 진행 현황

- 제1단계 1차투표:5개 작품 탈락
 - 탈락작품 번호:C,K,L,H,J

구분	B	C	F	H	J	K	L	M	O	R	S
득표	4	11	1	6	6	9	8	3	2	3	2
순위		1		4	4	2	3				

- 제2단계 1차투표:3개 탈락작품
 - 탈락작품 번호:R,M,B

구분	B	F	M	O	R	S
득표	6	5	6	5	8	3
순위	2		2		1	

- 제3단계 1차투표:가작 선정
 - 가작 작품번호:F

구분	F	O	S
득표	6	1	4
순위	1		

- 제4단계 1차투표:당선작 및 우수작 선정
 - 당선작 작품번호:S
 - 우수작 작품번호:O

구분	O	S
득표	5	6
순위	2	1

□심사평(유길준/동아대학교 교수)

사하구 신청사 계획설계(안) 현상공모(94.9.15 공고, 94.12.19. 접수마감, 94.12.22. 심사)는 부산시에서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사하구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한 현 청사의 협소함을 타개하기 위하여 사하구 신청

동 산 26-3의 약 9,000평의 자연녹지지역에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시행된 것이다.

본 현상공모는 그 과정과 심사에 있어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바, 즉 심사위원 사전공개, 심사위원 사전협의회 개최, 건축가의 작품설명기회 부여, 입선작 선정시 기명식 투표방법 채택 등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정직한 심사를 기대하며 채택된 것이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투표권을 갖지 않은 위원장(부구청장)과 11명의 심사위원(교수 6명, 구의원 2명, 건축사 1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과정은 총 11작품의 출품작 중에서 1차로 5작품의 탈락대상 작품을 투표하여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받은 작품을 탈락시킨 후 나머지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가의 설계설명을 청취하였으며(각 10분간), 이후 입선작 3점을 선정하는 2단계 심사에 이어 가작 1점을 뽑는 3단계 심사를 거친 후 당선작을 뽑는 총 4단계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심사는 심사위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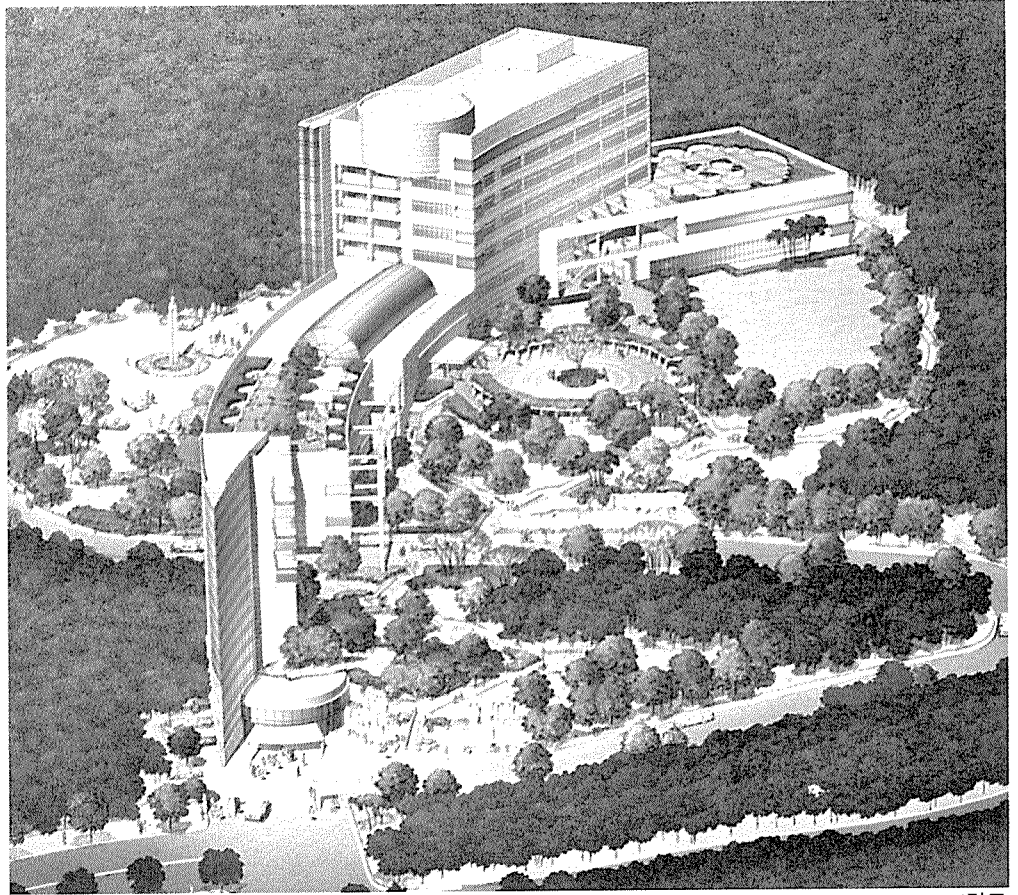
당선작인 (주)일신설계건축사사무소(정태복)의 안은 공간구성에 있어 예술적 창작성을 갖는 참신성이 돋보였으며, 민원인의 접근성에 우선권을 두는 등 기존 관공서 건물이 갖는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려 한 점과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계획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청사 입구 부분의 외부공간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지는 점과 건물형태의 날카로움, 그리고 일부평면계획상의 문제 등은 실시설계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점으로 지적되었다.

우수작은 신도시설계감리주식회사(박찬실)의 안으로 진입부 경사면을 수변공간으로 처리하고 관공서로서의 상징성을 갖는 형태구성 등이 평가 되었으며, 다만 청사출입구부분이 협소한 점과 평면계획상의 기능적인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가작은 부원종합건축사사무소(정성규)의 안으로 기능적으로 잘 짜여진 평면계획과 최대한 확보된 주차공간, 그리고 정돈된 입면을 갖는 전통적 관공서 건물의 전형으로 평가되었으나 보차분리의 미흡함과 지나치게 권위적 구성으로서 참신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총괄적으로는 11개 출품작 대부분이 상당한 수준의 작품으로 주어진 대지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형적특성을 적극적으로 계획에 반영하여 훌륭한 작품을 제안한 건축가들의 노력과 능력에 심사위원 일동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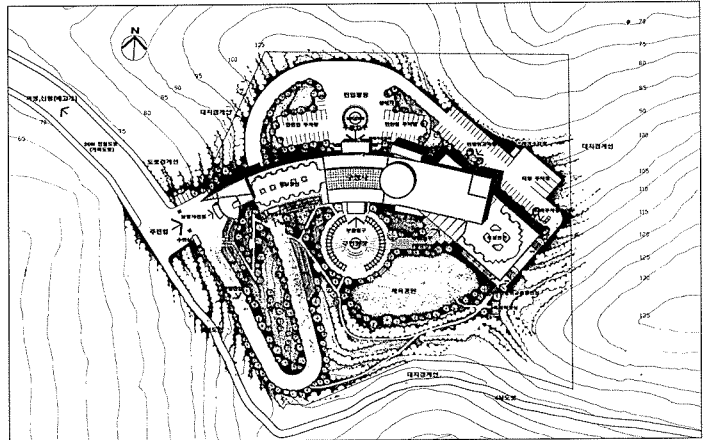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현 경기설계에서 시상제도의 문제로 당선작은 본 설계계약자로 지정됨으로 예외로 한다 하여도 지나치게 적은 입선작 작가에 대한 보상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선작이 실시설계과정에서 각계의 적절한 자문을 받아 건축가 자신의 설계의도의 충분한 반영은 물론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훌륭한 건축을 이루어 줄것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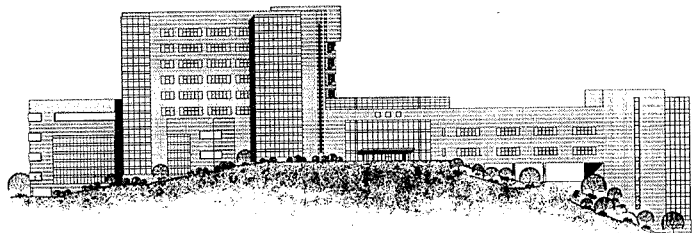
조감도

당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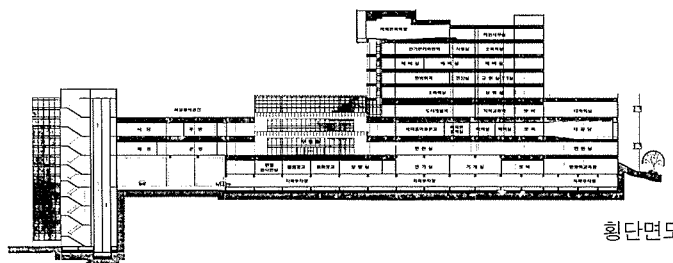
위치 /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산 26-3일원
 대지면적 / 29,760.00㎡
 건축면적 / 4,220.90㎡
 연면적 / 23,483.70㎡
 간폐율 / 14.18%
 용적률 / 57.65%
 규모 / 지하 2층, 지상 8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배치도



북측면도



횡단면도

시 강당을 이용하는 이동동선간의 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총별로 공간용도를 구분한다.
 차량동선을 S자의 도로로 접근시켜 보차를 분리한다.
 경사를 이용하여 도로에서 건물의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바로 진입시켜 접근을 쉽게 한다.
 부지 내 자연보존수림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확보한다.

4. 외부공간계획

- 진입공간
 - 수직이동동선체계
 - 개방된 계단실과 E.V홀의 시각적, 상징적 효과
 - 야간의 빛 투사로 지역 LANDMARK역할
 - 자연지형에 순응한 건물형태를 조망하여 진입

전면광장

- 차량 주출입동선 및 주차를 위한 서비스 공간
- 앞마당으로서의 심리적 기능적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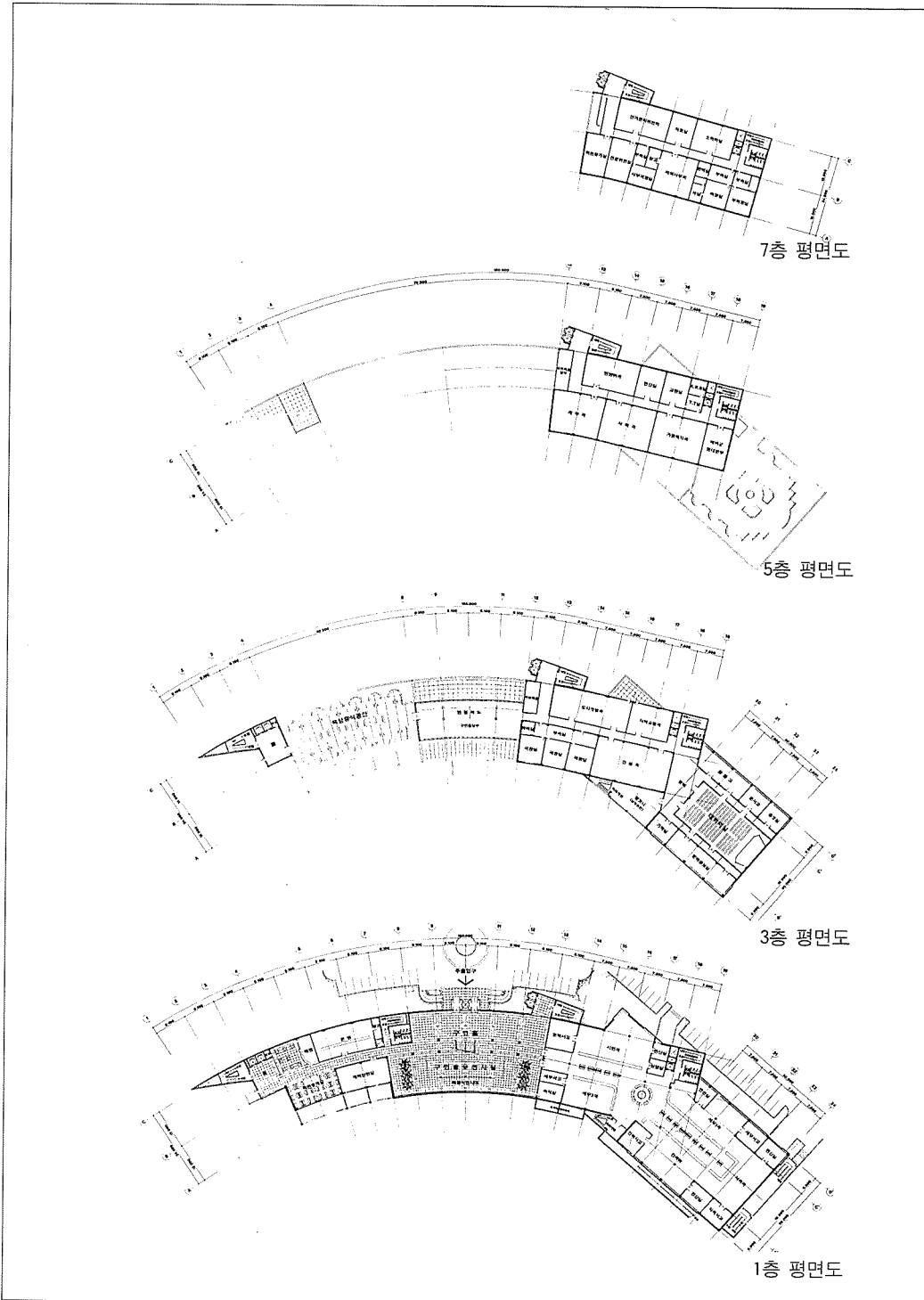
• 휴게공간

- 구민 및 공무원의 휴식공간
- 공원을 중심으로 각종 이벤트 유도
- 문화적 계획: 전시회, 야외극, 음악발표회, 강연회
- 축제적 계획: 구민행사, 각종 콘서트, 연회
- 광고 활동: 구청 캠페인 전시
- 스포츠 기능(테니스코트 등)의 수용

5. 내부공간계획

• 기능구분

- 민원업무부분
 - 구청의 중심기능으로 담당하여 편리성과 친밀성 그리고 개방감을 부여한다.
- 의회 부분
 - 구민의 의견수렴기관으로서 일 반의회 업무부분과 집회용의 의 장을 확보한다.
- 행정사무부분
 - 직제에 의한 공간을 산출하고 장래업무변화의 가변성을 고려한 기능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 후생복지부분
 - 직원을 주대상으로 하여 업무부 분과 교차되지 않게 하고 충분한 휴식공간의 배려로 환경의 질적향상에 기여한다.
- 특수업무부분
 - 방재, 보안 관계 등을 고려한다.



1. 토지이용계획의 주안점

토지이용계획은 한정된 범위의 토지공간을 합리적이고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계획에서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토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경사지의 지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며 토목량을 최소화한다.
 인접도로에서 뿐 아니라 가시권내에 있는 각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양호한 건물배치를 한다.

경사지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동선체계를 구상하여 이용자 및 차량의 접근이 양호하도록 계획한다.
 가용지의 제한으로 시설의 성격과 이용시설간의 관련성을 고려한 집약적이고 효과적인 배치를 한다.

2. 공간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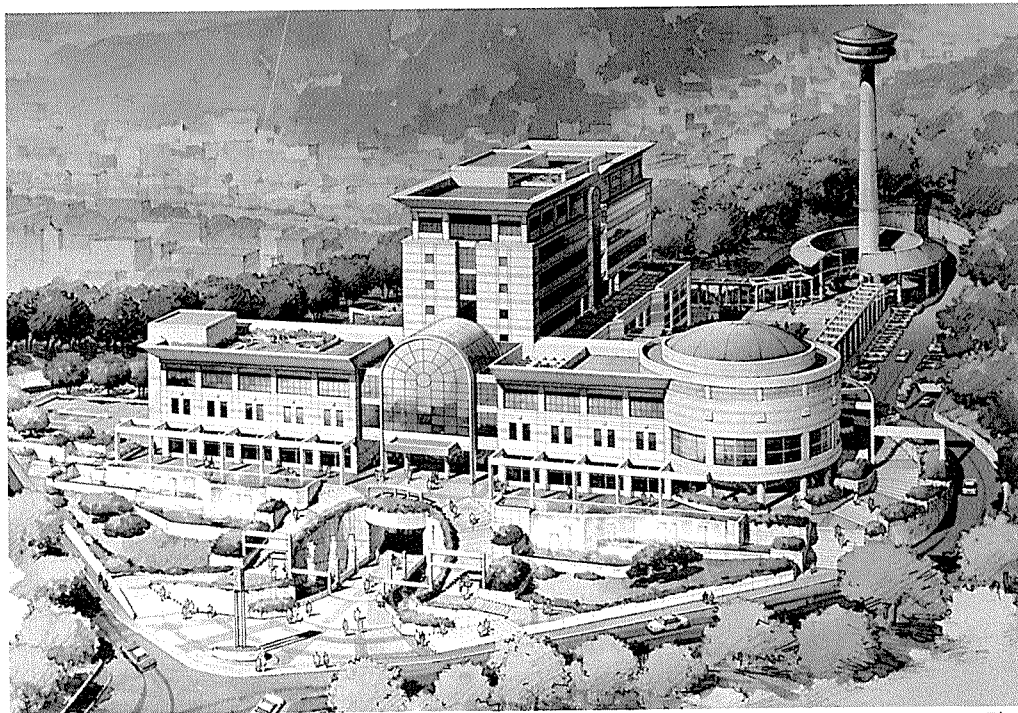
공간구성계획: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간감의 체험
 - 구청을 이용하는 구민들과 공무원들에게 경직된 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흥미롭고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 공간을 기능전결의 문학적 흐름

과 같이 머릿공간~이음공간~여유공간~쓰임공간으로 잇는다.

- 머릿공간: 진입부 수직 이동장치로 고저차를 극복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 이음공간: 연결복도 주변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기능을 둔다.
- 여유공간: 갑자기 텅빈공간. 하늘과 산이 보이고 허한 마당이 있어 긴장과 상념이 교차하는 절정의 장을 마련한다.

3. 동선체계

민원동선, 공무원동선 그리고 행사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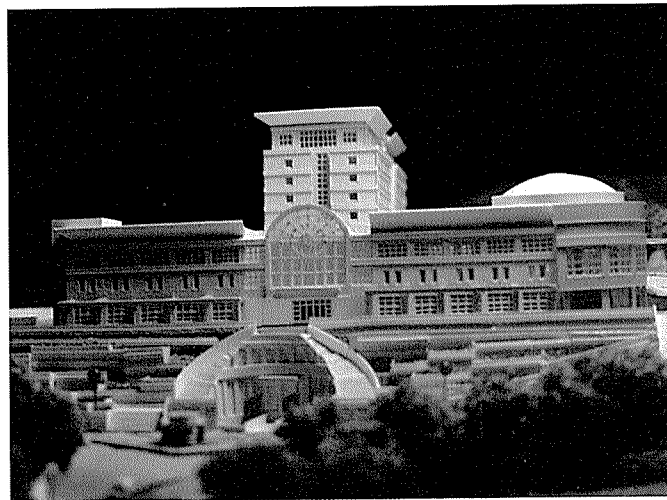
우수작

**종합건축 신도시설계 감리 (주)
(박찬실, 양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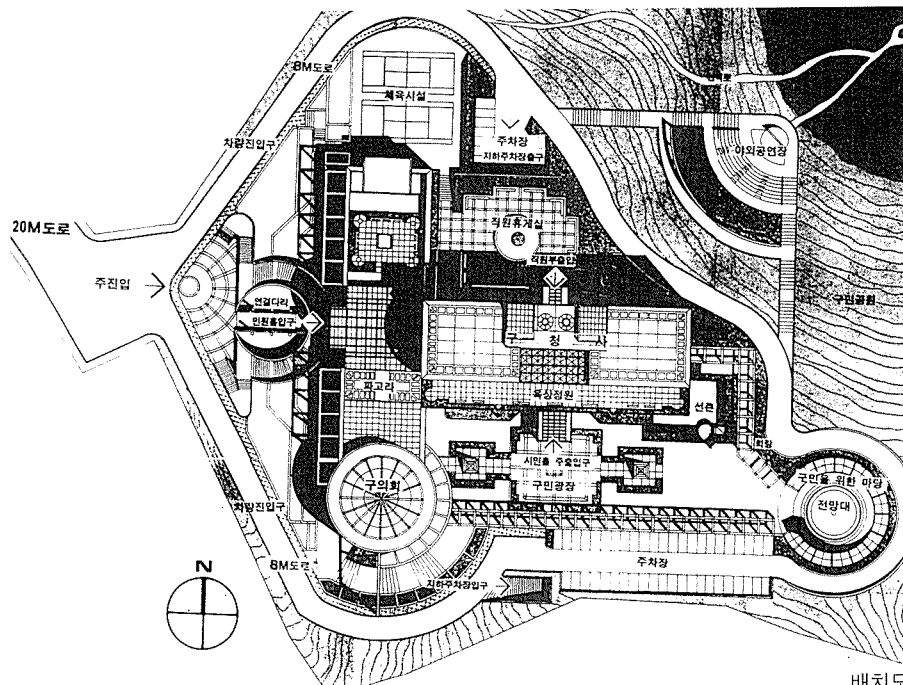
대지위치 / 부산직할시 사하구 신평동
산 26-2번지 일원
지역, 지구 / 자연녹지지구 공공의
청사부지

대지면적 / 29,760 m²
건축면적 / 4,147.22m²
연면적 / 20,594.75m²
건폐율 / 13.93%
용적률 / 7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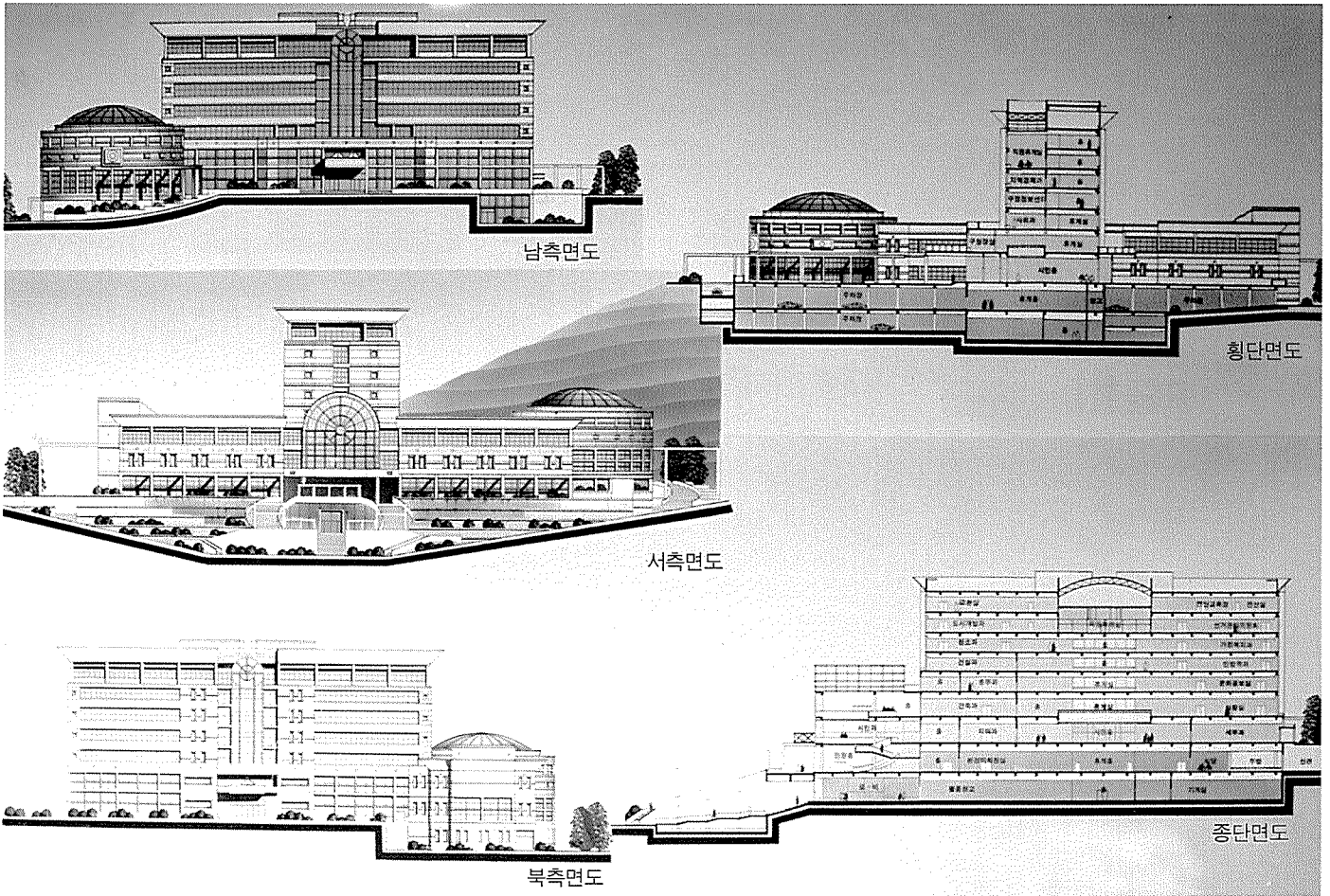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일부 철골조
규모 / 지하2층, 지상7층
외부 마감 / 화강석 베너구이, 흑두기, 컬러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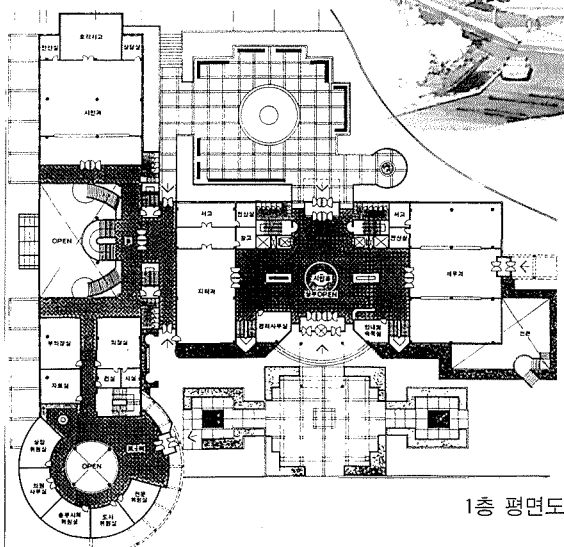
모형도



배치도



투시도



■ 배치개념, 계획

- 본청사는 부지의 환경계획을 우선 고려 자연속에 공원화된 공간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한 배치 계획
- 건축물배치는 부지의 지형을 고려 정면성을 통해 약간 뒤로 후퇴하여 조경적, 위계성을 구성 민원홀 통해 청사로 이어지는 보행자축 구성
- 외부공간을 자연스러운 지형을 최대

- 한 이용 가능한 부합된 이미지 고려
- 전정 - 건물 - 후정으로 이어지는 전통적 수용 연구
- 개방된 시야 확보
- 사면의 중요성과 실내에서 외부공간의 수렴대 조망
- 대지와 건물과의 상호유기적 관계를 위해 동선의 흐름 연결
- 주차장 진입을 보차분리 우선
- 지하주차장으로 빠르게 주차시킴